

8장 살아 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구체적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 주시는 그대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부분들의 합성이 아니라 단순하셔서, 모든 속성이 곧 그분의 본질과 같다. 엘·엘로힘, 엘 샤다이, 야웨, 야웨 체바오트를 거쳐 '아버지'와 삼위일체 이름으로 계시가 깊어진다.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에서 시작해 불변·영원·편재·단일성으로 이어지며 초월과 내재를 함께 말한다. 공유적 속성(영·지식·선·거룩·의·전능)은 하나님이 세상과 살아 있게 관계하심을 보여 준다.

용어 먼저

자존성	다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심
불변성	본질과 뜻이 바뀌지 않으심, 굳은 부동은 아님
단순성	부분의 합성이 아니라 속성 하나하나가 곧 본질
비공유적 속성	피조물엔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불변·영원 등)
공유적 속성	피조물에게 닮은꼴이 있는 속성(지혜·선 등)
유비	똑같지도 전혀 다르지도 않은 '닮음'으로 아는 방식
편재성	공간을 넘어서시면서도 모든 곳에 계심

구조도 · 하나님 이름의 점진적 계시



핵심 주장

-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그대로 존재하시며, 속성과 무관한 숨은 본질은 없다.
- 사랑 하나만 뿌리로 삼으면 공의와 거룩이 흐려지므로 자존성에서 출발한다.
- 속성이 여럿인 것은 하나님이 나뉘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해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하나님 지식은 피조물에서 빌린 유비적 지식이지만 참되다.
- 엘로힘 복수형은 삼위일체 증거가 아니라 능력의 충만을 나타내는 강조다.
- 출 6:3은 야웨 이름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그 뜻이 처음 풀린 사건이다.
- 불변성은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주시는 살아 계심이다.
-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므로 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갈라놓으며, 길은 회개다.

성경 근거

출 3:14	스스로 있는 자, 언제나 동일하신 야웨
창 17:1	언약을 맺으며 엘 샤다이라 나타나심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약 1:17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시 139:7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이 없음
사 59:2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음
롬 8:15	성령으로 자녀 됨을 알고 아버지라 부름

오해 → 바른 이해

× 하나님은 결국 '사랑' 하나로 다 설명된다	✓ 모든 속성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공의·거룩도 똑같이 실재다
×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다	✓ 본질은 그대로, 관계만 달라진다. 태양처럼 동일하시다
× 엘로힘 복수형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 능력의 충만을 나타내는 강조의 복수일 뿐이다
× 구약은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진화했다	✓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신적이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모든 속성에서 한결같이 살아 계신다.”

☞ 나는 하나님을 '사랑'만으로 축소해 거룩과 공의를 외면하지 않는가?

☞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을 때, 오히려 그분께로 피하고 있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